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개요와 내용

최경민_ 학예실 자료팀장



▲북관대첩비 탁본

을 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경축행사가 개최되었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1905년 일본이 약탈해 간 ‘북관대첩비’ (공식 명칭은 「조선국함경도 임진의병대첩비」)가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유폐되어 있다가 1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 품으로 돌아온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비가 아닌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략을 여지없이 분쇄한 조선인의 기개를 널리 알린 동시에 일본에게는 치욕적인 패배의 상징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제가 대한제국의 침탈을 본격화하면서 이 비를 약탈해 가 그들의 침략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방치함으로써 그들의 치욕을 씻고자 한 것이다.

북관대첩비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 지방에서 정문부(鄭文孚)가 이끄는 의병부대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전공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북평사(北評事) 최창대(崔昌大)가 1709년(숙종 35) 10월 함경북도 길주군 임명

(臨溟)에 세웠다. 그런데 1904년 러·일전쟁 당시 함경도에 주둔한 일본군 제2사단 17여단장 이케다(池田正介)소장이 임명역에서 이 비석을 발견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고자 하였다. 아마도 대륙 진출을 꿈꾸는 일본군 앞에 이 비석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에 1905년 사단장 미요시(三好)중장이 귀국시 일본으로 강탈해 갔으며, 그 이후로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조소양(趙素昂) 선생이 일본 유학시절 야스쿠니신사에 있는 이 비석을 처음 발견하고 느낀 소감을 대한홍학보(1909년)에 게재하여 일본 내에서 이 비의 행적은 확인되었다. 이후 1978년 우연한 기회에 이 자료를 발견한 최서면(崔書勉) 선생이 신사에서 이 비석을 찾아내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북관대첩비 크기는 높이가 187cm, 넓이가 66cm, 두께가 13cm이며, 앞 뒷면에 1,500여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의 비문은 1703년(肅宗 29) 북평사 최창대(崔昌大)가 지었고, 두전(頭篆, 비의 머릿글-북관대첩비)은 당대의 명필인 이조참의 윤덕준(尹德駿)이 쓰고, 이명필(李明弼)이 비문을 썼다.

독립기념관에 소장하고 있는 북관대첩비 탁본 자료는 1986년 정태진 선생(서울)이 기증해 주셨는데 탁본 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북관대첩비 탁본 자료는 1999년까지 민족전통관 임진왜란 부분에 전시하였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자료보존을 위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북관대첩비에 새겨진 내용을 이은상(李殷相) 선생이 국역한 자료(『軍史』 제2호(1981년))가 있어, 이 글을 읽는 애독자들이 북관대첩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게재한다.

**유명조선국함경도임진의병대첩비
(有明朝鮮國咸鏡道壬辰義兵大捷碑)**

중훈대부(中訓大夫) 장락원정(掌樂院正)

지제교(知製敎) 겸(兼)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보덕(輔德) 최창대(崔昌大)가 짓고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조참의(吏曹參議)

지제교(知製敎) 윤덕준(尹德駿)이

두전(頭篆)을 쓰고

조산대부(朝散大夫) 전(前) 행(行)

효능참봉(孝陵參奉) 이명필(李明弼)이 비문을 쓰다

옛날 임진란에 힘써 싸워 적을 깨뜨려 그 이름을 일세(一世)에 크게 올린 것으로 해전에서는 이 충무공의 한산대첩이 있고, 육전에서는 권 원수의 행주대첩과 이 월천(月川府院君 李廷蘊)의 연안(延安)대첩이 있어, 역사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유담자(遊談

者, 이야기꾼)는 그것을 칭송하여 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지위가 있어 수레와 군사들을 낼 수 있음에 힘입은 것이며, 곤고(困苦)하고 힘없는 가운데에서 떨쳐 일어나 도망하고 숨은 무리들을 분발시켜 오직 충의로써 서로 격려하여 마침내 오합지졸을 써서 완전한 승첩을 거두어 한쪽 땅(함경도)을 수복한 것은 관북(關北)의 군사가 그 중 으뜸이라 할 것이다.

만력(萬曆, 명나라 神宗의 年號)중에 왜의 추장(酋長) 풍신수길(豐臣秀吉)이 저들의 강한 군사를 믿고 덤벼, 중국을 침범하고자 엿보며 우리가 길을 빌려주지 않음을 성내어, 드디어 크게 쳐들어와 서울에까지 이르렀다. 선조(宣祖)는 이미 서쪽(평안도)으로 몽진(蒙塵)하고, 모든 고을이 무너졌는데, 경기도를 함락시킨 적의 무서운 장수 두 사람이 군사를 두 길로 나누니 소서행장(小西行長)은 행조(行朝)를 뒤따라 서쪽으로 가고 가등청정(加藤清正)은 북방을 침공하였다.

그 해 가을에 가등청정이 북도(함경도)로 들어갔는데 적의 군사가 심히 정예(精銳)하여 철령(鐵嶺)이북에서 우라 군사가 성(城)을 지켜내지 못하였다.

이때 국경인(鞠景仁) 등이 반역하여 적에게 내응(內應)한 바, 국경인은 회령(會寧)의 아전으로 본성이 악하여 순종하지 않더니 적이 부령(富寧)에 이르자 그 위기를 타고 난을 일으켜 피난해 온 두 왕자(臨海君과 順和君)와 대신을 잡고, 그리고 그 지방의 수령과 관리들을 묶어 적에게 넘겨주고 정성을 보였다. 경성(鏡城)의 아전 국세필(鞠世弼)은 그의 숙부인데, 명천(明川) 사람 말수(末秀), 목남(木男)과 서로 무리를 지어 함께 적이 주는 관직을 받아 각각 고을을 웅거(雄據)하고 성세(聲勢)를 퍼서 죽이고 위협하기를 그의 지령대로 하니, 여러 고을이 무너지고 겁내어 백성들이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였다.

경성(鏡城)의 이봉수(李鵬壽)는 의기 있는 선비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소개

라, 분개하며 말하되 '비록 나라의 어지러움이 여기에 이르렀으나, 흉도(兇徒)가 어찌 감히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최배천(崔配天), 지달원(池達源), 강문우(姜文佑) 등과 함께 의병 일으키기를 꾀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지위가 서로 비슷하여 장수 삼을 이가 마땅치 않았다.

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는 문무의 재주는 있으나 군사가 없어 싸울 수 없으므로 몸을 피하여 산골에 숨어 있던 중 의병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즐거이 좇았던 바, 마침내 정공(鄭公)을 추대하여 주장(主將)으로 삼고, 종성부사(鍾城府使) 정현룡(鄭見龍)과 경원부사(慶源府使) 오응태(吳應台) 등을 차장(次將)으로 삼아 피로써 맹서하며 의병을 모집하여 백여 명을 얻었다.

그 때 북쪽 오랑캐들이 또 북쪽 변방을 침범하므로 여러 장수들이 사람을 시켜서 국세필을 달래어 같이 힘을 합하여 오랑캐들을 막자 하니 국세필이 허락하고 의병을 성 안으로 불러들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정공이 기(旗)와 북을 세우고, 남쪽 성루(城樓) 올라 국세필을 피어 그가 현신(顯身)할 때 강문우에게 눈짓하여 그를 사로잡아 목을 베어 조리돌리고, 그의 위협에 못 이겨 따른 자들은 놓아 주었다. 그리고 곧 군사를 이끌고 명천(明川)으로 나아가서 말수(末秀) 등을 잡아 목 베고 회령 사람이 또한 국경인을 쳐서 목베어 의병에게 호응하니 군세가 점점 커지고 따라와 붙는 자가 더욱 많아졌으며, 길주(吉州) 사람 허진(許珍), 김국신(金國信), 허대성(許大成)이 또한 성원하였다.

이 때에 가등청정이 편장(偏將)으로 하여금 정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길주를 웅거(雄據)케 하고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고 남관(南關)에 진을 쳐 호응하고 있었다. 11월에 적을 가파리(加坡里)에서 만나 싸우려는데 정공이 여러 장수들을 배치하되 정현룡은 중위장(中衛將)을 삼아 백탑(白塔)에 진을 치게 하고, 오응태, 원충서는 북병장(伏兵將)을 삼

아 석성(石城), 모회(毛會)에 나누어 진을 치게 하였다. 그리고 한인제(韓仁濟)는 좌위장(左衛將)을 삼아 목책(木柵)에, 유경천(柳擎天)은 우위장(右衛將)을 삼아 날하(捏河)에, 김국신, 허진은 좌우척후장(左右斥候將)을 삼아 임명(臨溟)·방치(方峙)에 각각 나누어 진을 치게 하였는데 적들은 여러 번 이긴 끝이라 방비를 허술하게 했다.

우리 군사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덮쳐지며 기운을 얻어 밀고 나갔는데 고향치며 앞서 나가지 않는 군사가 없어 적이 패하여 달아나므로, 군사를 풀어 추격하여 그 장수 5명을 죽이고 목을 수 없이 베었으며, 그 말과 무기들을 모조리 빼앗았다.

이에 원근(遠近)이 진동하여 장수와 관리들로서 도망쳐서 숨어 었던 자들이 다투어 일어나 호응하니, 그 수효(數爻)가 7천 명에 이르렀다. 적은 마침내 길주성으로 들어가 움츠리고 감히 발동하지 못하였는데, 길 옆에 북병을 두어 나오기만 하면 무찔러 버렸다.

성진(城津)의 적이 임명에서 노략질을 크게 침략하므로 정예한 경기병(輕騎兵)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무찔렀으며, 산에 매복을 하였다가 적의 귀로를 엿보아 협공하여 크게 깨뜨림으로써 또 수백 명을 목 베고, 마침내 그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어 대로가에 널어 놓으니 군사의 형세가 크게 떨쳐지고 적은 더욱 두려워 움츠리게 되었다.

12월에 또 쌍포(雙浦)에서 싸웠는데 싸움이 바야흐로 무르익을 때 편장(偏將)이 철기(鐵騎)를 끌고 적진의 옆을 풍우(風雨)같이 무찌르니 적이 세(勢)를 잃어 맞서 보지도 못하고 모두 흩어져 달아나므로 우리 군사가 그 기세를 타고 적을 또 깨뜨렸다.

이듬해 정월에 단천(端川)에서 싸웠는데, 세 번 싸워 세 번 이기고 돌아와, 길주에 진을 치고 군사를 쉬게 하자, 가등청정이 자기 군(軍)의 불리함을 알고 대병(大兵)을 보내어 길주의 적을 맞아 돌아오게 하므로 우리 군사들은 그 뒤를 쳐서 백탑(白

塔)에 이르러 크게 싸워 또 그들을 패하게 하였다. 이 싸움에서 이봉수, 허대성, 이희당(李希唐)이 전사하였는데, 적은 마침내 물러가 다시는 감히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였다. 이때에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도 또한 소서행장을 평양에서 격퇴시켰는데, 정공이 최배천을 시켜 사잇 길로 행재소(行在所, 義州)에 승첩(勝捷)을 아뢰니, 임금이 불러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이봉수에게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증직(贈職)하고, 최배천에게는 조산대부(朝散大夫)의 계급을 내렸다.

그 때 관찰사 윤탁연(尹卓然)이 '정문부가 절도사에게 아뢰지 않는다' 하여 성내며 의병의 공적이 자기보다 뛰어난을 시기하여 임금께 공로를 숨기고 거짓말로 아뢰었던 까닭으로 정공에게는 포상이 시행되지 않았다.

오랜 뒤 현종(顯宗) 때에 관찰사 민정중(閔鼎重)과 북평사 이단하(李端夏)가 부노(父老)들에게서 듣고 사실을 아뢰어 비로소 정문부에게는 좌찬성(佐贊成), 이봉수에게는 지평(持平)을 증직(贈職)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치등을 두어 관작(官爵)을 내렸으며, 또 사당을 경성 어랑리(漁郎里)에 세워 당시에 같이 일한 여러 사람들을 제사케 하고 창렬(彰烈)이라 사액(賜額)하였다.

지금 임금(肅宗) 경진(庚辰)에 최창대(崔昌大)가 북평사가 되어 의병의 자손들과 함께 연고지를 방문하여, 사적을 자세히 얻어 개연(慨然)히 제공(諸公)의 기풍을 상상도 하고, 또 이른바 임명, 쌍포(雙浦)를 찾아 진(陣)치고 싸우던 자리를 거닐고 돌아보며 탄식하며 떠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부노(父老)에게 말하되 '삼 오랑캐의 진화(戰禍)가 몹시 심하여 삼경(三京, 즉 漢城, 開城, 平壤)이 함락되고 팔도가 무너졌는데, 이 분들은 죽음을 걸고 외로운 군사를 이끌고서 역센 도적을 무찔러 나라의 발상(發祥)한 옛 땅(太祖의 고향)으로 하여금 마침내 오랑캐 땅이 되는 것을 면하게

했으며, 변방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일어나 충의를 서로 권하게 된 것이 그 또한 누구의 힘이던고. 행주, 연안에는 모두 비갈(碑碣)이 있어 사적을 적어 공렬(功烈)을 나타내었으므로 동서로 오가는 이들이 우러러 보고 몸을 굽히거니와 관북(關北)은 거룩한 공로를 가지고서도 비갈 하나 없으니 어찌 여러분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그렇소, 우리들의 뜻이 그러한데 하물며 공의 명령까지 있음에야 하며 마침내 돌을 다듬고 재물을 모으고 사람을 시켜 내게 글을 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책임자가 아니어서 사양했더니 다시 와서 말하되 '이 일은 실로 공이 먼저 발의하였으니 허락해 주지 않으면 철폐하겠소.' 하므로, 마침내 그 사적을 서술하고 이어서 명(銘)을 붙인다.

남쪽에서 도적이 와 대방(大邦, 明)을 치려드니
우리는 이웃이 되어 온 나라가 화(禍)를 입었네.
높고 높다 북방이여 오랑캐 소굴되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저항없이 따르도다.
피 머금은 입으로 흉한 독(毒)을 뱉을 적에
씩씩하다 우리 군사 못 호걸 헌걸차다.
군사란 정의가 제일, 창과 활이 부질없어
반역자 무찌르니 저 도적 못 덤비네.
병정들 북을 치니 산이 무너지듯 바다 끓듯
우리 군사 빛난 전술 흉한 적들 무너지네.
천벌을 내리게 함은 사사(私事) 아닌 정의거니
북쪽 땅 평정되어 누에치고 농사짓네
임금은 감탄하며 네 공보다 더할이 뉘더냐.
벼슬 주고 사액(賜額)하니 한결 같은 은혜로다.
선비 기풍 열렬하니 백성들도 용감하고
임명 바닷가에 우뚝한 돌이 있어
찬송을 거기 새겨 영원토록 보이노라.

송정(崇禎) 갑신(甲申, 1644) 뒤 예순 다섯 해 시월에 세우다